

이재명·이낙연, ‘호남정치 1번지’ 총장로서 민심 잡는다

원팀 행보...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들쭉잡는 중앙당 선대위·재야원로 등 각계 3천명 지지

설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호남정치 1번지’ 광주 총장 로에서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이번 방문이 아직까지 뜨뜨미지근한 호남 민심에 불을 당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지지율 담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 후보가 27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여권의 심장부 광주에서 ‘원팀 행보’를 이어간다.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광주 동행’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여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 들쭉’을 전파해 수도권으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전 대표의 동행은 아직도 뜨뜨미지근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지지율 반등 등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매다버스로 총장로를 찾아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광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방문 하루전인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와 지지자들이 광주에서 군 불을 지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 재야 원로들과 시민사회, 5·18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 정치권 등 친노·친박·친이낙연계 인사 등 3,000여명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과 동행’ 선언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보단에는 강행욱 변호사, 정찬용 전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통일간담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김선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부의장, 5개구 협의회장들과 통일간담회를 가졌다.

정외대 인사수석, 안성래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 강희욱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장, 도성 광주불교연합회장, 김중재 전 광주향교 전교 등 지역 각계 인사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동행을 선언하고 전국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를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로 인정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특보단장은 “이재명과 동행

선언에 광주·전남 재야 원로들과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참한 것은 정제된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근 지지율 담보상태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게 뒤지고 있는 이 후보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지지세를 몰아 설연휴 반전을 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뜨뜨미지근한 호남 민심이 과거와 같이 다시 탈구어져 정권 재창출의 불씨가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현산, 사운 걸고 붕괴사고 수습해달라”

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위 회의 후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약속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선거대책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학동 사고 이후에 또 이러한 화정동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희생자들이 수습이 되고 주변 주민의 피해나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파트 붕괴사고 희생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구조 대원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민이 다시 한번 광주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선거대책위 후 서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산업개발은 사운을 걸고 실종자 수색, 주변 피해 상에 대한 보상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색 현황 청취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은 국제적인 회사인데 신용도나 자체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고를 철저히 수습하고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중수본 회의실에서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면담한 내용도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는 “가족들이 퇴려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 문제를 당부했다”며 “그분들의 마음에 상당히 감동하였고 눈물이 났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피해자 가족들의 어떠한 질책도 달갑게 받겠다”며 “실종자들의 안전을 귀환을 바라며 수색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대표 방문 현장에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민원 대응 탓에 붕괴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주변 상인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구조를 바라며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조기철 기자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시, 내달 11일까지 관내 비영리단체 등 대상

광주시는 ‘고객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고일 현재 광주시내 소재한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기기 등을 보유하고 고객센터 산업육성 등 관련

전문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지역 내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객센터 신·증설 유치활동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 및 네트워킹 지원 ▲고객센터 입지여건 등 홍보

▲상당사 인력양성 및 순회 설명회 ▲상당사 감성노동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오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2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유지하고, 올해 1월 현재 보행·통신 등 분야 75개 고객센터에서 7,2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김승남,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

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한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두터운 금융 지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체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